

야마코시의 비단잉어 양식

야마코시는 옛날부터 ‘해엄치는 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비단잉어의 양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단잉어 양식은 머지않아 일본 전국으로 퍼졌고, 수십억 엔 규모의 국제 산업의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나가오카 지역에는 150 개 이상의 비단잉어 양식 업체가 있으며, 그중 약 90 개의 상업용 및 취미용 잉어 양식장이 야마코시에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양식과 품질을 자랑하는 업체로부터 비단잉어를 구매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매년 잉어 양식장을 방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잉어 양식장을 방문하려면 예약을 해야 하지만, 야마코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비단잉어가 양식되고 있는 계단식 논이나 계단식 연못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잉어와 계단식 논을 볼 수 있는 장소

나가오카시 야마코시 지사의 야외에 있는 활어조와 인접한 야마코시 부흥 교류관인 오라타루의 시설 내에 있는 수조에서는 크고 고운 빛깔의 비단잉어가 해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타루의 수조에는 공식으로 인정받은 많은 비단잉어 품종이 그림 설명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 곳곳에 있는 수많은 전문 잉어 양식장에서 잉어를 양식하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지금도 몇 세기 전과 비슷한 계단식 논을 연못을 사용합니다. 야마코시 주변의 특정 전망 구역에서는 계단식 논과 계단식 연못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특히 초여름에는 선명한 석양이 수면에 반사되어 감동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야쿠시노오카, 야마코시 지사 뒤편 전망 구역에 있는 니코니코 광장이나 고시코젠 스키장 부근에 있는 잇폰스기도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야마코시 비단잉어 양식의 역사

야마코시의 비단잉어 양식은 약 200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겨울 식량으로 새까만 참잉어를 양식했습니다. 봄에는 참잉어의 알을 계단식 논으로 옮겨 벼 사이에서 부화시켜 길렀습니다. 잉어가 일정 크기로 자라면 전용 계단식 연못으로 옮겨지고, 눈이 내리기 전에 가정용의 안전한 연못으로 옮겨졌습니다. 19 세기 초, 검은 참잉어 중에 빨간 무늬가 들어간 잉어가 발견되어 이를 교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몇 년간의 품종 개량을 통해 약 100 종류의 다양한 몸 색깔을 지닌 비단잉어가 탄생했습니다.

1914 년에 개최된 도쿄 다이쇼 박람회를 계기로 야마코시의 비단잉어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16 년, 브리더들이 잡종 교배를 통해 더욱 다양한 색과 무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마코시의 비단잉어는 해외 바이어나 잉어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야마코시의 브리더는 일본에서 최초로 비단잉어를 해외에 판매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2004 년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으로 야마코시의 잉어 양식장은 큰

피해를 보았지만, 일본 전국의 브리더와 잉어 애호가의 지원으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야마코시의 비단잉어는 전 세계의 연못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판매 시즌에는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헤엄치는 보석'을 고르기 위해 야마코시 마을로 모여들어 북적이는 시장을 이룹니다.